

# 최근 경제환경과 노동시장 변화

2000년 2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2층

전화 393-1457 팩스 393-4449

Email: [klsi21@chollian.net](mailto:klsi21@cholli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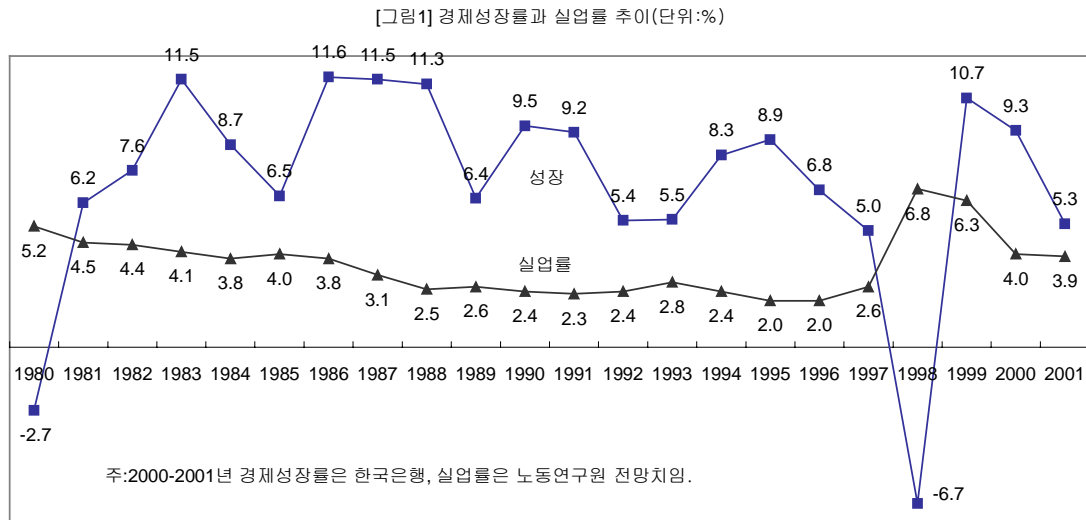
<http://klsi.org>

# 제1절 경제환경

## 1. 주요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환경 변화가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보다 크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방식이 기업별로 분권화 되어 있고, 좌파 정당이 집권은커녕 원내 의석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1987년부터 1997년까지 경제성장률은 5% 미만으로 떨어진 해가 없다. 경제위기가 얘기되던 1989년과 1992년에도 경제성장률은 6.4%와 5.4%이었고, 매년 경제성장률은 5-12% 사이를 오르내렸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자 1998년 경제성장률은 -6.7%로 떨어졌고, 이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그렇지만 199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1999년 경제성장률은 10.7%를 기록했고, 2000년에도 9.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2001년 경제성장률은 5% 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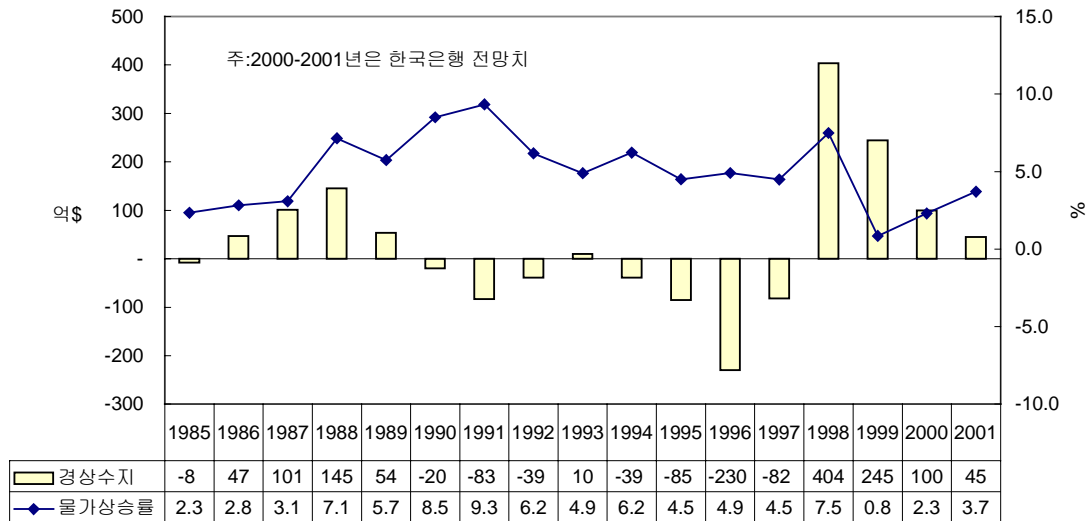
실업률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2%대로 지표상 완전고용이라 할만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실업률이 6.8%로 급등했고, 1999년에도 6.3%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199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2000년 실업률은 4.0%로 하락했고, 2001년 실업률도 3.7-4.2%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1998-99년과 같은 대량 실업사태가 다시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환위기 이전의 저실업 구조가 다시 찾아오지도 않을 전망이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경제환경은 ‘고성장-저실업’ 구조로 노동운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성장-고실업’, 1999년에는 ‘고성장-고실업’ 구조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고, 2000-2001년을 경유하면서 점차 ‘중성장-중실업’ 구조로 이행할 전망이다.

###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물가상승률은 4.5-9.3% 사이를 오르내렸다. 따라서 1987년 이후 경제환경은 ‘고물가’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물가 구조는 기업별 노조·교섭체제와 한데 맞물려,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임금투쟁을 최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만들었다. 높은 물가상승으로 노동자 대중의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로서는 명목임금 인상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임금투쟁은 노동자 대중의 생활수준을 유지·개선하고 노동조합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임금투쟁 이외에 다른 사업과제를 등한시하는 등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2]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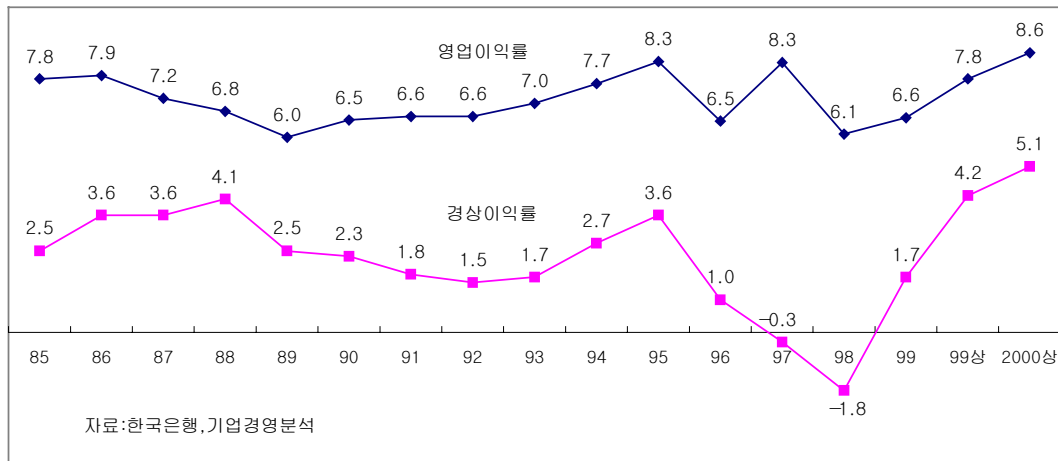
1999년 이후 경제환경은 ‘저물가’ 구조로 전환했다. 물가상승률은 1999년 0.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2000년에는 2.3%, 2001년에는 3.7%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1999-2001년 물가상승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물가’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은 2-3%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1990년이래 매년 적자가 누적되었고, 급기야 1997년 말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큰 폭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어 2000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이 962억\$에 달하고 있어, 1997년 말과 같은 외환위기가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1998년 440억\$ 흑자를 정점으로 매년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음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 2. 기업 경영상태

### 수익성(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1987년 이후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sup>1)</sup>/매출액×100)은 매년 6-8% 사이를 오르내렸다. 경제위기 국면인 1998년에도 영업이익률은 6.1%이었고, 1999년에는 6.6%로 개선되었다. 이에 비해 경상이익률(경상이익<sup>1)</sup>/매출액×100)은 1995년까지 1.5-4.1%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1996년 1.0%, 1997년 -0.3%, 1998년 -1.8%로 크게 악화되었다. 이것은 금융비용, 환차손 등 영업외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인데, 최근 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환율과 금리가 안정되면서 1999년 이래 경상이익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림3] 연도별 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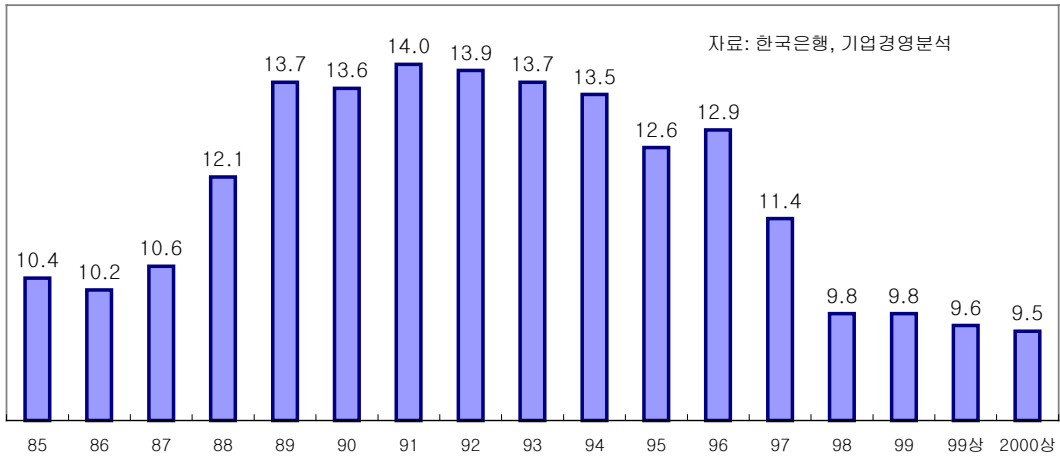
### 인건비 비중

경제위기 국면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은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가능했다. [그림4]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88년부터 1996년 사이에는 12-14% 대이었으나, 1997년에는 11.4%, 1998년에는 9.8%로 하락했고, 경기가 회복된 1999년에도 인건비 비중은 9.8%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70년대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 영업이익 = 매출액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소요된 제 비용

2)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그림4]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 (제조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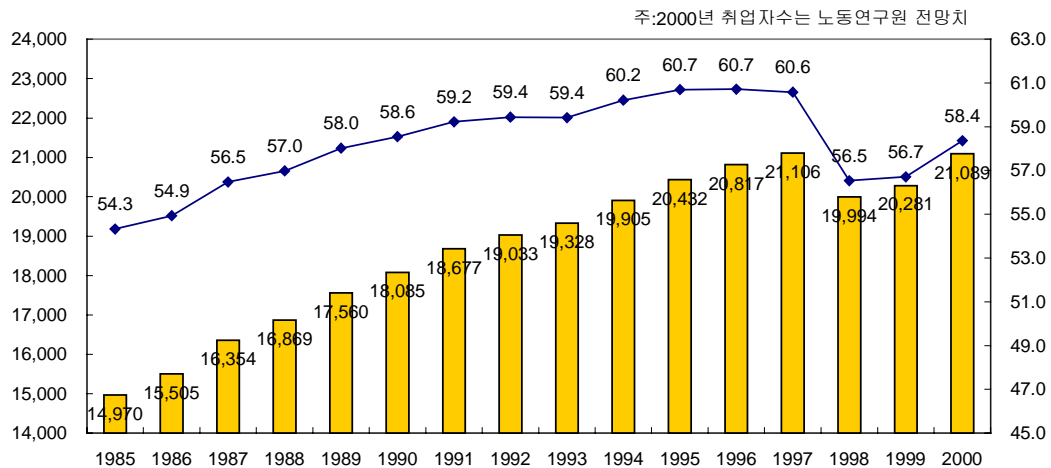
## 제2절 최근 노동시장 변화

### 1. 고용

#### 취업자

[그림5]에서 취업자수(취업률)는 계속 증가해 1997년 2,111만 명(60.6%)을 기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1998년에는 취업자수(취업률)가 111만 명(4.1%) 감소했다. 경기가 활황(活況)으로 돌아선 1999년 이후 취업자수는 다시 증가해 2000년에는 1997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취업률(취업자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은 58.4%로 여전히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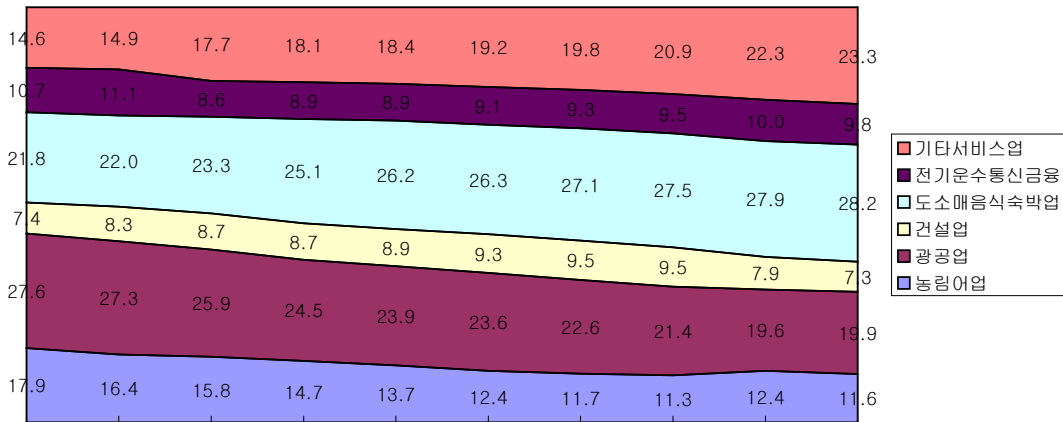
[그림5] 취업자수와 취업률 추이(단위:천명,%)



[그림6]에서 1990년대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광공업 취업자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1997년 11.3%에서 1998년 12.4%로 증가한 것은 취업난에 따른 일시적 현상 때문이며, 광공업 취업자 비중이 1998년 19.6%에서 1999년 19.9%로 증가한 것은 1998년 취업난으로 그 비중이 지나치게 하락한데 따른 일시적 반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및기타서비스업은 1998년에도 취업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의 비중은 1990년 42.0%에서 1999년 51.5%로 증가했다.

[그림6]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1990-99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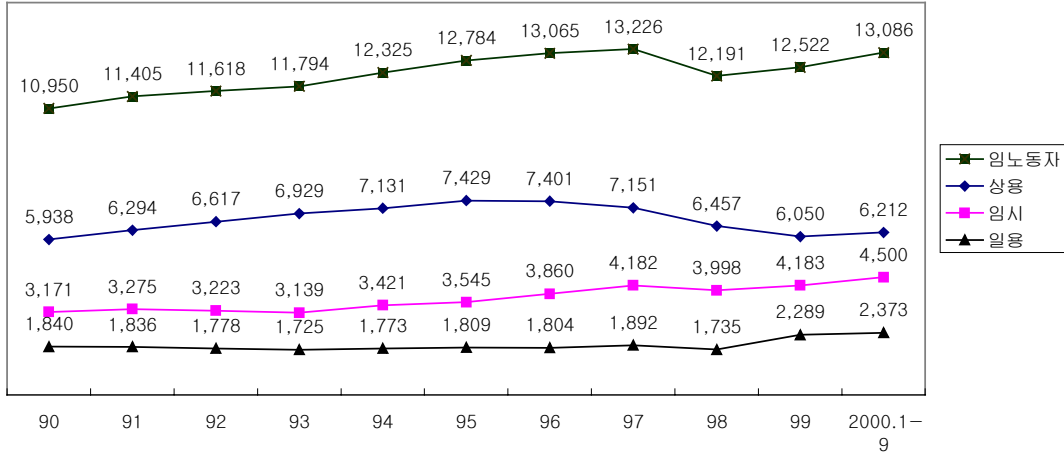


## 임금노동자

[그림7]에서 임금노동자는 계속 증가하다가 1998년 한 해 동안 104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든 1999년부터 임금노동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에는 1997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지만 상용직은 1995년(74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1998년에는 전년대비 69만 명 감소했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1999년에도 전년대비 41만 명 감소했으며, 2000년(1-9월)에 들어서야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1993년(486만 명)을 저점으로 1998년 단 한 해를 제외하면 계속 증가해, 1999년 이후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 결과 2000년(1-9월) 임시직과 일용직은 687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2.5%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표1]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568만 명 가운데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13만 명(19.8%)밖에 안 되고, 10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35만 명(58.9%)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임시·일용직이 전체 임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상용직 가운데 절대 다수가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조직화’가 노동운동의 중점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내부노동시장에 조용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외부노동시장에 조용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기업의 고용관행 또한 ‘내부노동시장형’에서 ‘내부와 외부노동시장 병존형’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7] 종사상지위별 임노동자수 추이(단위:천명)



[표1]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산업별·규모별 분포(1999년, 단위: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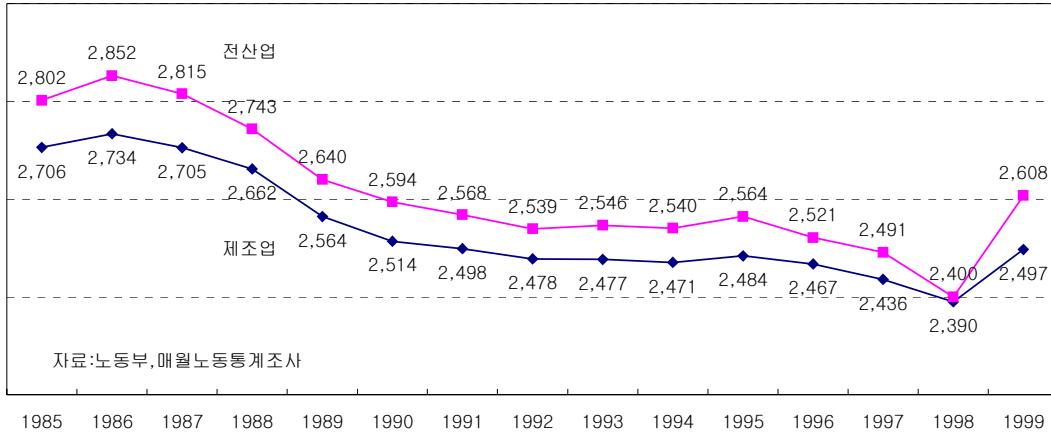
	전규모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산업	5,682	777	1,305	1,264	923	289	1,125
광업	21	2	7	5	2		6
제조업	2,344	194	435	536	386	135	658
전기·가스·수도사업	44	1	3	12	14	4	9
건설업	342	75	100	66	38	10	53
도소매·음식·숙박업	773	234	254	120	79	24	62
운수·창고·통신업	502	30	62	107	199	50	55
금융·보험·사업서비스	1,026	127	329	260	108	43	159
사회·개인서비스업	629	114	116	156	97	22	123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9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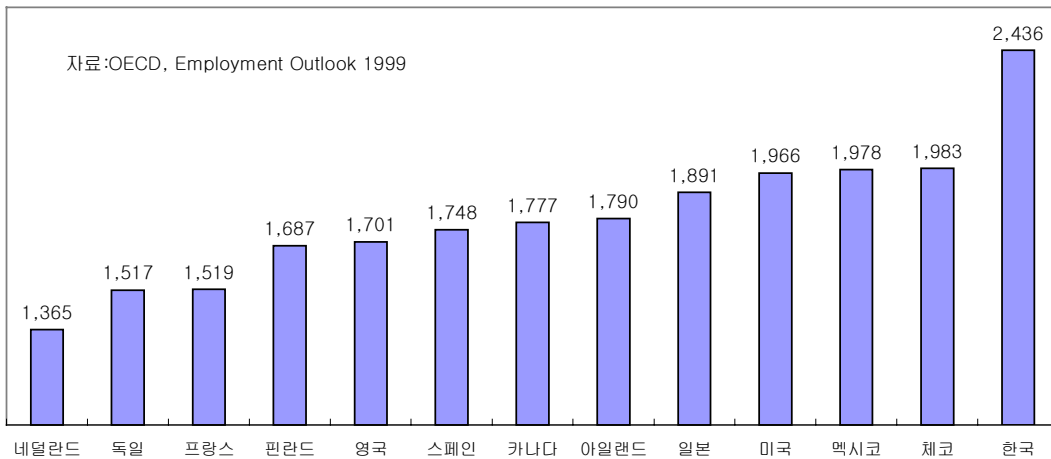
### 노동시간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1989년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실 노동시간은 1993년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소진된 1993년 이후 실 노동시간은 제조업 2,550시간, 전산업 2,470시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1997-98년에는 노동시간이 2,400시간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 노동시간은 제조업 2,608시간, 전산업 2,497시간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기업이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 인력의 초과노동으로 경기회복에 대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1990-9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그림9]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OECD 국가 가운데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림8] 연간 노동시간 추이



[그림9] OECD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1997년)



##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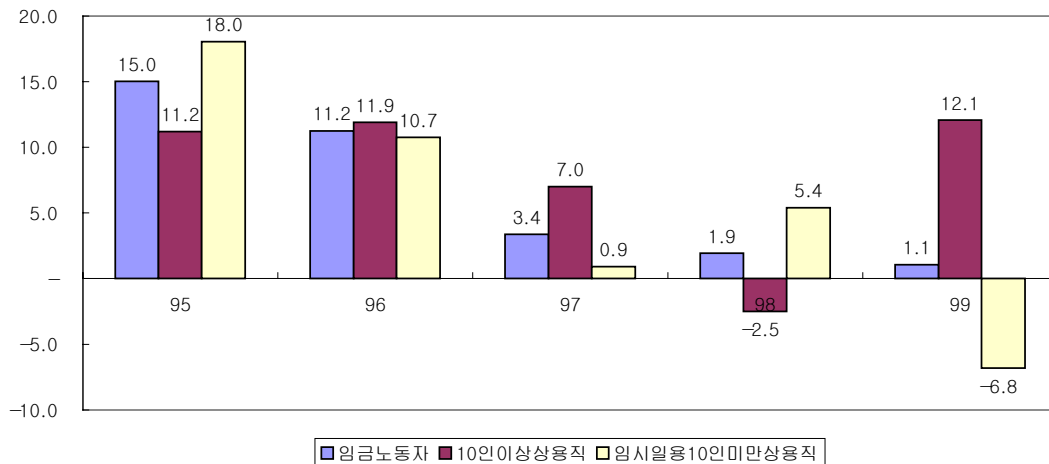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임금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실태를 반영하는 데는 갈수록 한계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임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금조사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자보수총액을 구한 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노동자수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먼저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를 토대로 임금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1996년까지 임금인상률은 매년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1997년에는 한 자리수 인상(7.0%)을 기록했고, 1998년에는 사상 처음 임금삭감(-2.5%)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임금삭감은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 199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1999년 임금인상률은 12.1%로 상승했고, 2000년에도 8-9%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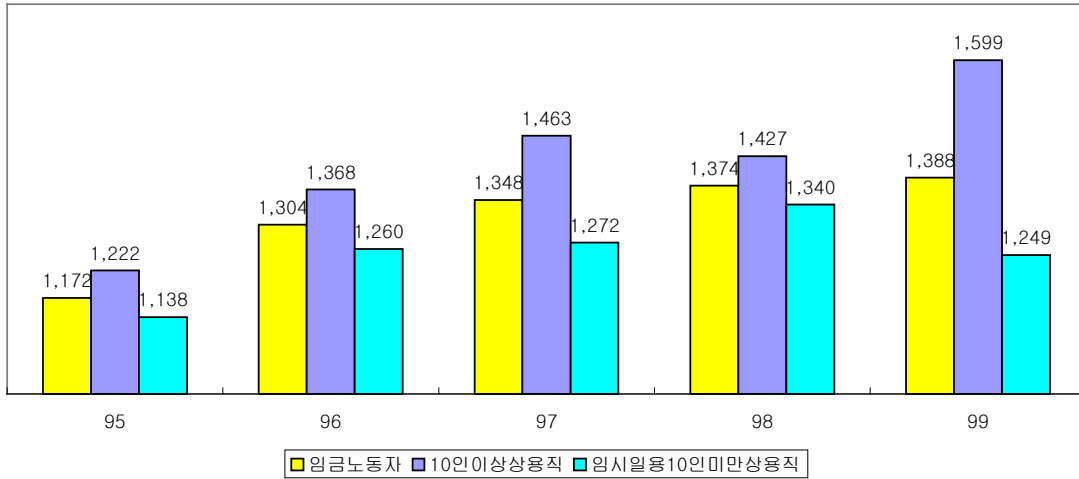
다음 한국은행의 피용자보수총액을 토대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6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매년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1997년에는 3.4%, 1998년에는 1.9%, 1999년에는 1.1%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만 조사대상으로 할 때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9년 임금인상률이 상용직은 12.1%인데 전체 임금노동자는 1.1%밖에 안 됨은, 경기회복에도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의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자료에서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 임금인상률 추이를 계산하여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6년까지는 이들의 임금인상률도 대체로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1997년에는 0.9%, 1998년에는 -2.5%, 1999년에는 -6.8%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9년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은 임금인상률이 12.1%인데,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은 임금인상률이 -6.8%로 그 격차가 18.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상용직의 경우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로 경기회복에 대처했고, IMF 경제위기 때 삭감했던 특별급여를 원상회복 지급한데 비해, 임시·일용직의 경우 극도의 저임금 일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10] 임금인상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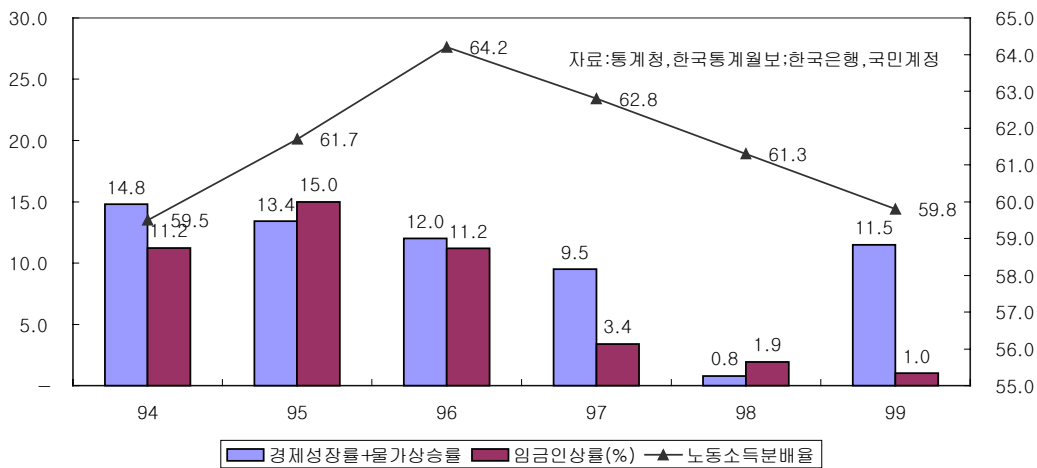
[그림11] 임금수준 추이(단위:천원)



### 소득분배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임금인상률은 대체로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과 근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임금노동자수 증가와 맞물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7년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보다 6.1% 못 미치고, 1998년에는 임금노동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4.2%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임금노동자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보다 10.5% 못 미침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59.8%로 하락했다.

[그림12]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과 노동소득분배율(%)



더욱이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림 13]에서 1993년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배율(5분위 계층 소득점유율 / 1분위 계층 소득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1999년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배율은 0.3294와 5.49로 근래 보기 드문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13] 소득분배구조 추이

